

# 와이프 마음 사로잡았더니, 아가메즈 팡팡쇼!

학용품 선물 등 '한국의 정' 보여줘  
둘째 입원 땀 동료들이 병원비 보태  
아가메즈, 팀워크 앞장서며 득점 UP



지난 5월 이탈리아 몬  
자에서 열린 2018년 V  
리그 외국인선수 트라이  
아웃. 남자부 7개구단 감독들 사이에서 가  
장 많이 언급된 선수는 아가메즈, 요스바  
니, 파다르였다. 드러난 기량으로만 보자  
면 아가메즈가 가장 눈에 띄었다.

하지만 몇몇 감독들은 실력을 인정하면  
서도 성격을 부담스러워 했다. 외국인선수  
에게 요구되는 착한 인성과 팀워크에서의  
문부호가 따라다녔다. 1순위를 잡은 팀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서 독박을 쓸 수도 있  
다는 말이 나돌았지만 우리카드 신영철 감  
독은 주저 없이 아가메즈를 선택했다.

### ●신영철 감독의 뱀 꿈과 아가메즈 아내의 마 음 사로잡기

타이스와 아가메즈를 놓고 저울질 했던  
신영철 감독은 최종선택 전날 평소 안 꾸  
던 꿈을 꿔다. 검은 뱀이 자신에게 오는 꿈  
이었다. 그 뱀은 첫 번째 구슬을 암시했을  
수도 있다. 시즌 준비과정. 다른 팀 감독들  
이 우리카드에 가장 궁금해 했던 것은 아가  
메즈와 팀 동료들과의 융화였다. 사람은 변  
하지 않는다는데 과연 그가 4년 전과 얼마  
나 달라졌는지 호기심어린 눈으로 봤다.

신영철 감독은 "예전에 그보다 더한 선  
수와도 해봤다. 가슴으로 대화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 된다"며 자신만만해 했  
다. 현대캐피탈보다 훈련시설이 좋지도 않  
고 풍족한 대우도 해줄 수 없는 우리카드  
의 현실상 아가메즈의 마음을 사로잡을 무  
연가가 필요했다. 우리카드의 선택은 한국  
인만의 정서인 정(情)이었다. 또 하나. 코  
트는 아가메즈가 지배하지만 그를 컨트롤  
하는 사람은 아내다. 우리카드는 아가메즈  
의 아내 줄리의 마음을 공략했다.

구단은 인천 청라지구 선수단 숙소 가까  
이 고급 아파트를 얻어줬다. 콜롬비아에서  
치과의사를 했던 줄리는 환경에 만족했다.  
어린 두 아이와 생활하기에 좋은 장소였  
다. 줄리는 "아파트단지에 있는 헬스클럽  
에 가도 되느냐"며 물었다. 구단은 흔쾌히  
OK해줬다. 헬스클럽 비용을 부담해주겠다  
고 했다.



우리카드 외국인선수 리버맨 아가메즈는 2018~2019시즌 트라이아웃 1순위 지명을 받은 공격수다. 현  
대캐피탈 소속이던 4년 전 보여준 다혈질 성향에 따른 우려도 있었지만, 우리카드 구단은 한국 특유의  
정서로 아가메즈를 팀에 녹여줄게 했다. 사진제공 | KOVO

### ●구단주의 한복선물과 어린이집 알림장 속 제 해주기

아가메즈 가족은 첫 딸 마리아를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에 보내 한국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게 했다. 어린이집에 입학하던  
날 구단은 정성껏 마련한 학용품을 선물했  
다. 원원제 구단주의 지시였다. 이 뿐이 아  
니었다. 구단주는 추석 때 두 아이들을 위  
해 한복도 선물했다. 가족들은 한복이 마  
음에 들었는지 사진을 보냈다. 최근에는 아  
가메즈 가족에게 방한복도 선물했다. 세심  
한 배려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구  
단주의 뜻이 반영된 선물공세였다.

신영철 감독의 아내도 나섰다. 예쁜 자  
개 보석함을 줄리에게 선물했다. 선물뿐만  
이 아니었다. 어린이집에서는 매일 아이들  
의 생활과 준비물 등을 알림장에 적어서 보  
내온다. 줄리는 한국어를 모른다. 통역이  
매일 알림장을 보고 설명해주고 대답도 대

신 적었다. 아내는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배  
려해주는 구단에 고마워했다. 외모와는 달  
리 결혼한 뒤 유난히 가정적인 사람으로 변  
한 아가메즈에게 어떤 말을 했을지는 듣지  
않아도 짐작이 된다.

신영철 감독도 나섰다. 평소 훈련과정  
에서도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감독은 아가메  
즈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KB손해  
보험에 저서 4연패를 당한 뒤였다. 감독은  
아가메즈의 승부근성을 인정해줬다. "우리  
가 경기를 해가면서 좋아진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너의 승부욕으로 팀을 바꿔야 한  
다. 우리 선수들은 아직 어리고 약하다. 너  
의 노하우를 선수들에게 잘 알려주라"고 했  
다. 그 면담의 효과가 있었다. 10월 29일 현  
대캐피탈에게 3-0 승리를 거뒀다. 그날 아  
가메즈는 수비 때 몸을 날려가면서 헌신했  
다. 팀의 약점인 미들블로킹을 커버하려고  
중앙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



우리카드 구단은 아가메즈의 딸에게 한복을 선물  
했다. 사진제공 | 우리카드 구단

### ●입원한 아가메즈의 아들을 위해 병원비를 각출한 우리카드 선수들

호사다마라고 할까. 시즌 첫 승리 다음 날  
아가메즈의 둘째 크리스토퍼가 급성 바이  
러스로 병원에 입원했다. 구단은 즉시 문병  
을 갔다. 문제는 큰 딸 마리아였다. 엄마가  
병실에서 1살짜리 크리스토퍼를 지켜야 하  
는 가운데 전염의 우려 때문에 3살짜리 마  
리아는 누군가가 따로 돌봐줘야 했다.

아가메즈가 훈련과 육아를 병행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때 먼저 구단이 나서서 "우  
리가 첫 째를 돌봐주겠다"고 했다. 마틴 코  
치의 가족도 손을 들었다. 같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속내를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마  
틴의 가족이었다. 소아과 의사 출신 마틴의  
아내(렌카)가 자원해서 마리아를 맡아주  
기로 했다. 다행히 크리스토퍼는 10월 31일  
조기 퇴원했고 이제 건강하다.

마무리는 우리카드 선수들이 했다. 입원  
소식을 들은 우리카드 선수들은 시즌 첫 승  
리수당에서 십시일반으로 100만원을 모아  
다. 선수들은 아가메즈에게 병원비를 쓰라  
고 건넸다.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선수들과 구단 그리고 주변의 이런 마음  
씀씀이에 아가메즈가 어떤 충성심과 감사  
한 마음으로 팀과 동료들을 대했는지 보지  
않아도 뻔했다. 4일 한국전력과 경기에서  
아가메즈는 무려 71.1%의 공격성공률  
로 팀에 승점3을 안겼다. 9일 현대캐피탈  
과의 폴세터 점전 때는 상대팀 최태웅 감  
독이 허를 내두를 정도로 엄청난 높이에서  
공격을 했고 수비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았  
다. 비록 막판 범실로 경기를 내줬지만 아  
가메즈가 먼저 동료들을 격려했다.

역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고 가는 말  
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우리카드는 아  
가메즈를 완전한 우리의 선수로 품어 안았  
다. 그 놀라운 변화의 비결은 아가메즈 가족  
의 마음을 사로잡은 정, 디테일한 배려, 관  
심이였다. 김중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 박성현 LPGA 최종전 출격 랭킹 1위 + 11억원 정조준

CME 챔피언십 우승 땀 두뚝한 보너스



박성현

박성현(25·KEB하나은행)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최종전에서 세계랭킹 1위 탈환과 11억원 보너스 획득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을까.

올 시즌 3승을 거두며 LPGA 투어 2년차  
를 성공적으로 보낸 박성현은 15일(한국시  
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 티뷰론 골프  
클럽(파72·6556야드)에서 개막하는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250만달러·약  
28억원)에 출격한다. 이번 대회는 CME 글  
로브 포인트 상위 랭커만이 출전 자격을 지  
닌 '최후의 왕중왕전'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박성현의 우승 여부  
다. 다승왕 등극은 물론 세계랭킹 1위 탈환  
과 11억원 보너스 획득이라는 방대한 선물이  
눈앞에 놓여있다. 박성현은 현재 아리아  
주타누간(23·태국)과 각종 타이틀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나란히 3승을 거뒀  
다승부문 공동선두에 올라있고, 세계랭킹  
에서도 주타누간이 7.99점, 박성현이 7.75  
점으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만약  
박성현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거둔다면  
4승으로 다승왕에 오를 수 있고, 동시에 주  
타누간의 최종전 성적에 따라 세계랭킹 왕  
좌 탈환도 가능하다.

또 하나의 우승상품은 두뚝한 보너스다.  
현재 CME 글로벌 포인트 5위인 박성현이  
최종전 우승을 차지할 경우 대회 우승상금  
5억6000만원을 품는 동시에 CME 글로벌  
챔피언에 올라 11억원의 보너스를 얻을 수  
있다. 박성현으로선 놓칠 수 없는 연말 성  
과금이다. 고훈 기자 shutout@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한우  
가마솥  
진국**

**끈지암 ♥ 소머리국밥**

**업종전환 비용은 본사에서 선투자 하겠습니다**

**특보** 창사 20주년 기념 혜택 (선착순 50명)  
간판, 썬팅, 홍보물, 포스 등 ... 무상지원!

끈지암 ♥ 소머리국밥 집으로 간편만 바뀔 대박나시고 성공하세요!

업종전환 비용 **250만원** 으로 **OPEN**

**성공사례(마진율이 높음)**

일매출 20만원~50만원 팔던 가게  
고민끝에 간편 바뀔 업종변경으로  
일매출 150만원~200만원

**11월 오픈예정점**

배곧신도시점, 연안부두점, 마천점  
대구성서점, 대전홍도점, 부천 신중동역점  
조치원점, 전북 장수점, 충북 봉양점, 세종 금남점

**주방장 없이 초보자도 쉽게 창업/20여가지 메뉴중 선택**

갈비탕, 장터국밥, 설렁탕, 뚝배기불고기, 순대국  
내장탕, 감자탕, 소곱창전골, 소꼬리찜, 수육무침  
소갈비살, 마늘보쌈, 김치찌개, 우삼겹...

**270 호점 OPEN** 가맹점 취급점

유사브랜드에 주의하세요 **NAVER** 끈지암 할매 소머리국밥

**가맹점 모집 1588-3892**  
취급점